

어린이집 이용 양육자의 보육 경험과 정책 요구

01.

어린이집 이용 경험

02.

긴급돌봄과 양육 요구

03.

보육정책 인식과 요구

04.

정책 제언

- 저출생의 장기화 영향으로 경남은 최근 10년간('13년~'22년) 만0~6세 영유아 인구가 36.1% 감소 하였음. 경남 인구에서 영유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'13년 6.8%에서 '22년 4.4%로 줄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4.4%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- 영유아 인구 감소로 질 높은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 보육정책은 공공보육시설 확충,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료 지원 등 국가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.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(2023~2027)에는 미래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양육지원,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,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, 보육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보육정책에 대한 양육 가구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·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충족 미흡,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 격차 및 사각지대 발생, 자녀 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
- 어린이집 감소, 유보통합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남 영유아 양육자의 어린이집 이용과 양육 경험, 정책 요구 분석을 통해 경남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함
- 본고는 2022년에 수행한 「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(2023~2027)」 연구에서 경남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함

조사개요

- 조사목적: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거, 경남의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「경상남도 중장기 보육계획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- 조사기간: 2022년 10월 6일 ~ 10월 30일
- 조사방법: 온라인 조사
- 조사대상: 영유아(만0~6세) 자녀를 둔 어린이집 이용 양육자 602명
- 조사항목: 어린이집 이용 현황, 양육 실태,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 등

01. 어린이집 이용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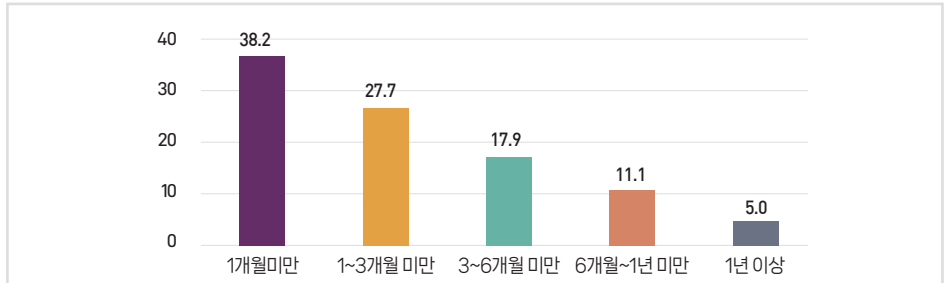
■ 어린이집 선택과 입소

• 어린이집 대기 기간

-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은 평균 2.7개월이며, '1개월 미만'이 38.2%로 가장 높고, '1~3개월 미만' 27.7%, '3~6개월 미만' 17.9%, '6개월~1년 미만' 11.1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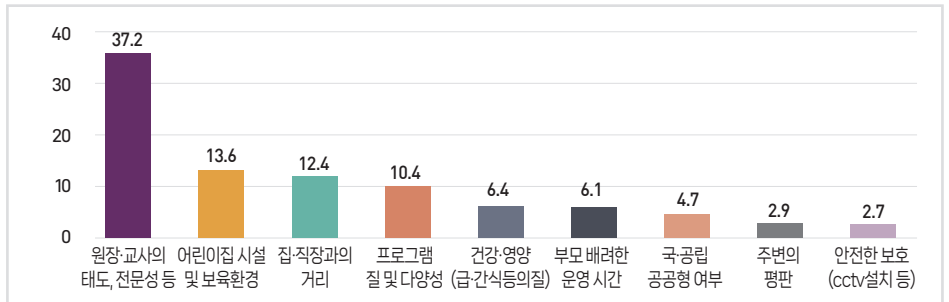


•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

-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'원장, 교사의 태도, 전문성 등'이 37.2%로 가장 높고, '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환경' 13.6%, '집, 직장과의 거리' 12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2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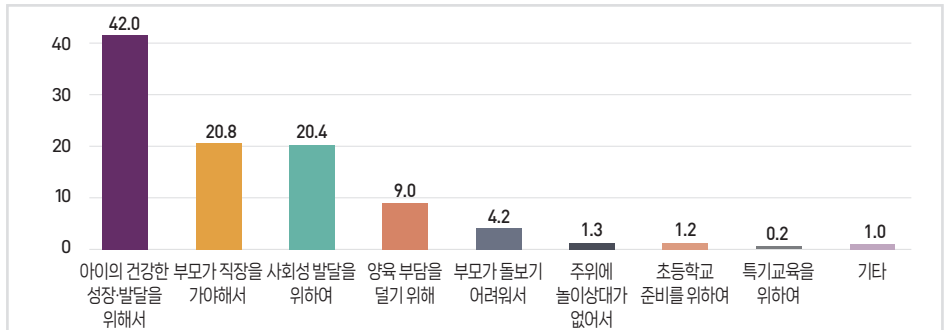
■ 어린이집 이용 이유

•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

-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'아이의 건강한 성장, 발달을 위해서'가 42.0%로 가장 높고, '부모가 직장을 가야해서' 20.8%, '사회성 발달을 위하여' 20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3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



■ 어린이집 비용과 평가

• 어린이집 비용

-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담했던 필요경비는 월평균 9.39만원이며 '5~10만원 미만'이 32.6%로 가장 높고, '5만원 미만' 29.6%, '10~15만원 미만' 19.9%, '20만원 이상' 13.0% 등의 순임
-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되지 않음 (전혀 부담되지 않음+별로 부담되지 않음) 70.1%, 부담됨(조금 부담됨+많이 부담됨) 29.9%으로 나타남
- ※ 2023년부터 경상남도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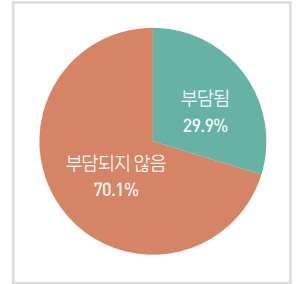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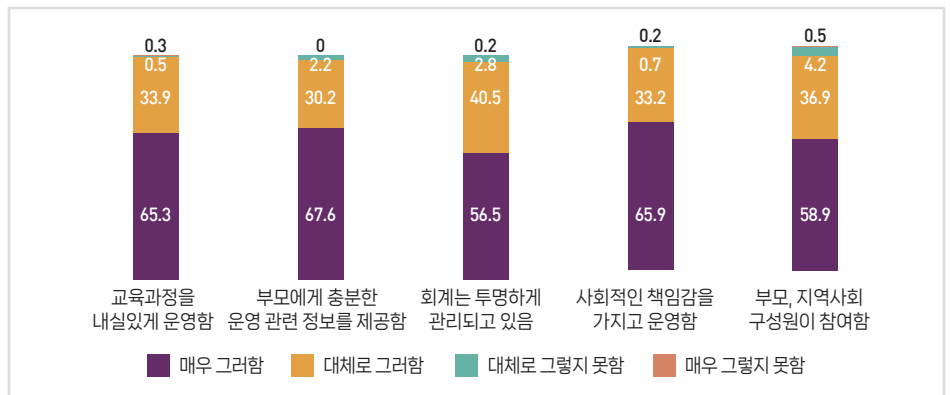
그림4 비용 부담 정도

•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

-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.52점(4점 척도)이며, 만족(만족+매우 만족) 96.8%, 불만족(매우 불만족+불만족) 3.2%로 나타남
- 세부항목별 평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(대체로 그럭함+매우 그럭함) 비율이 높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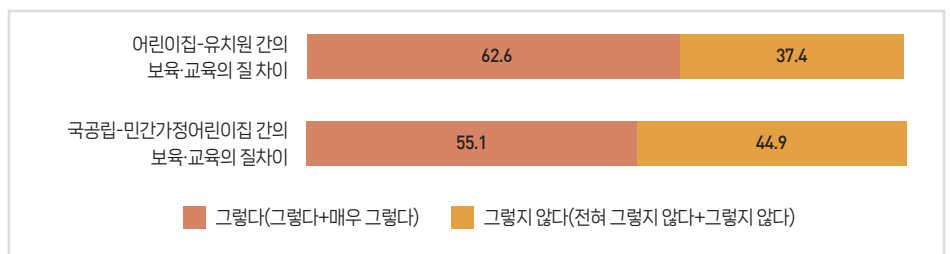


• 어린이집 평가(보육·교육의 질 차이)

- 국공립과 민간·가정어린이집 간의 보육·교육의 질 차이에 대해 55.1%,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보육·교육의 질 차이에 대해 62.6%가 '그렇다'(그렇다+매우 그렇다)고 응답함
- 국공립-민간·가정어린이집 간의 보육·교육의 질 차이보다 어린이집-유치원 간의 보육·교육의 질 차이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6 어린이집-유치원, 국공립-민간·가정어린이집 간의 보육·교육의 질 차이



02. 긴급돌봄과 양육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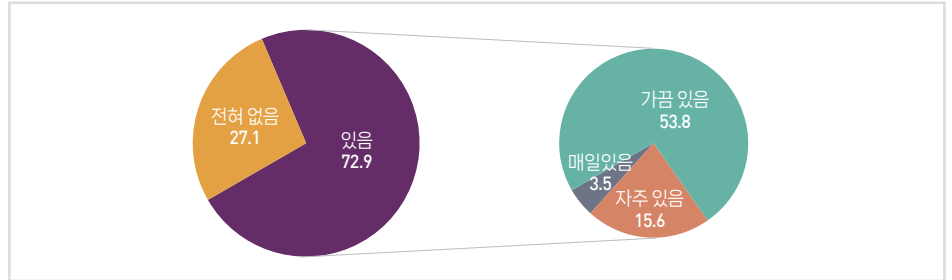
■ 긴급돌봄

• 긴급돌봄 공백 발생 빈도

-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빈도는 어린이집 이용 양육자의 72.9%가 있다고 응답함

(단위: %)

그림7 긴급돌봄 공백 발생 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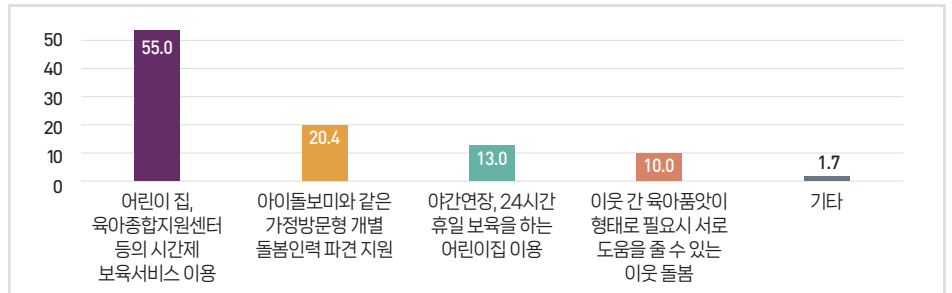


• 긴급돌봄 필요 시 선호하는 서비스

- 긴급돌봄 필요 시 선호하는 서비스로는 '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(55.0%)'이 가장 높고, '아이돌보미와 같은 가정방문형 개별 돌봄인력 파견 지원(20.4%)' 등 순임

(단위: %)

그림8 긴급 돌봄 필요 시 선호하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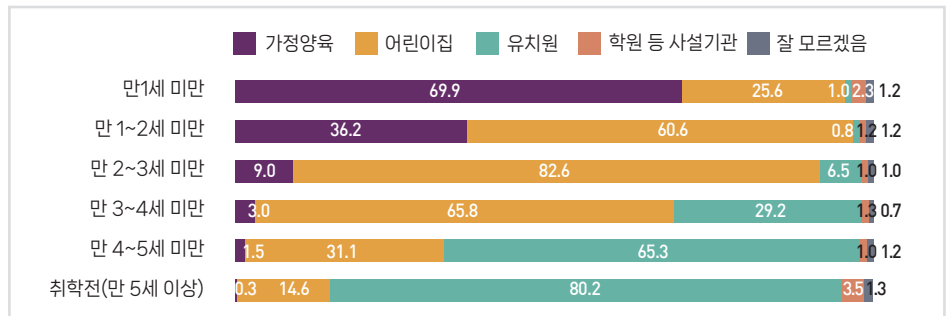


• 자녀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

- 자녀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는 '만1세미만'의 경우 '가정양육' 선호가 매우 높고, '만1~2세미만', '만2~3세미만', '만3~4세미만'은 '어린이집' 선호가 높게 나타남. '만4~5세미만'와 '취학전(만5세 이상)'은 '유치원' 선호가 높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9 자녀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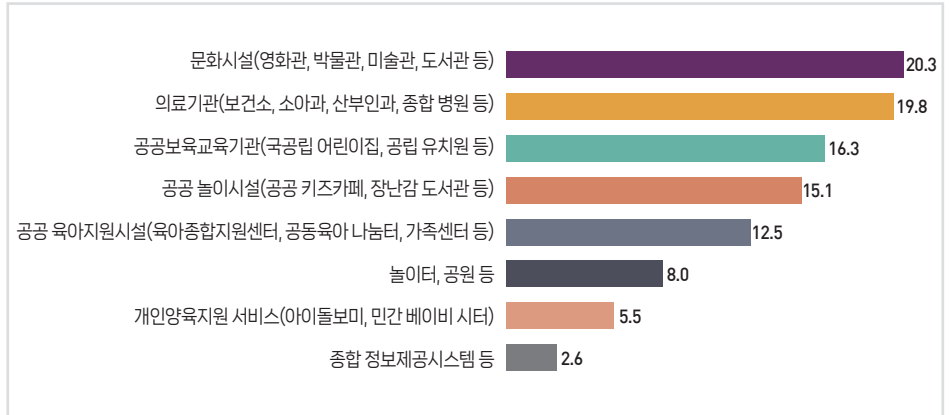
■ 양육 인프라

• 지역사회에 필요한 양육지원 인프라

-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인프라로 '문화시설'이 20.3%로 가장 높고, 의료기관 19.8%, 공공보육교육기관 16.3%, 공공놀이시설 15.1% 순으로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0 지역사회에 필요한 양육지원 인프라



(단위: %)

■ 부모교육

• 부모교육 의향

-각종 보육·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에 대해 '있음(72.3%)'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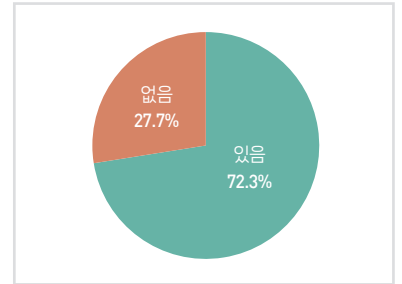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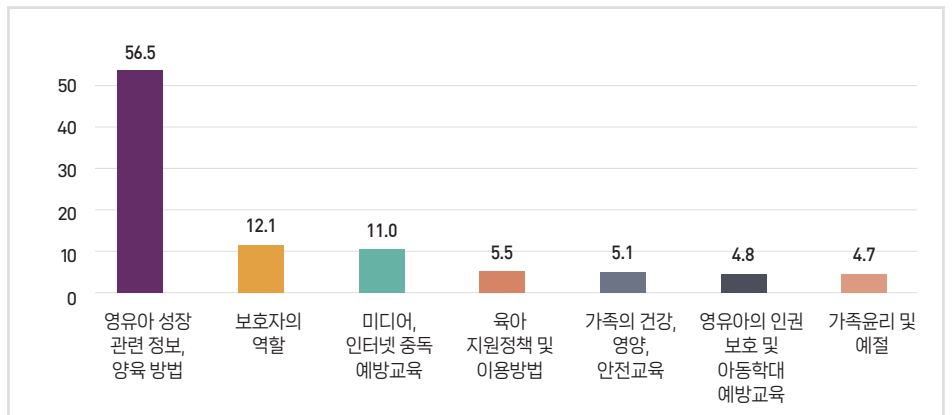
그림11 부모교육 의향

• 받고 싶은 부모교육

-받고 싶은 부모교육으로는 '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·양육방법(대화법, 놀이방법 등)'이 높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2 받고 싶은 부모교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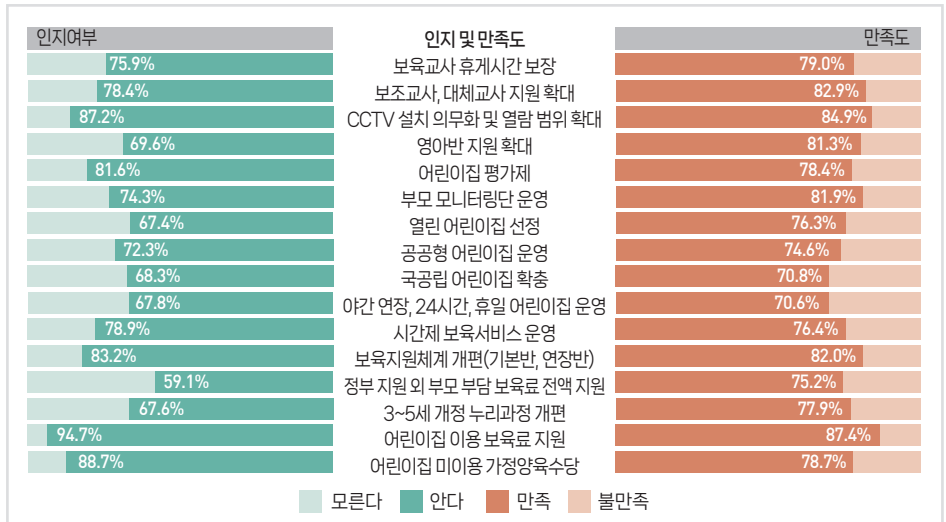
03. 보육정책 인식과 요구

■ 보육정책 인지 여부와 만족도

- 보육정책 인지 여부
 - 현재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지원·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이 94.7%로 가장 높고,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88.7%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반면, 정부지원 외 부모부담 보육료(차액보육료) 전액 지원은 59.1%로 가장 낮게 나타남
- 보육정책 만족도
 - 만족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87.4%, CCTV 설치 의무화 및 열람범위 확대가 84.9%, 보조교사, 대체교사 지원 확대 82.9%, 보육지원체계 개편(기본반, 연장반) 82.0% 순임
 - 반면, 야간연장, 24시간, 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은 70.6%로 가장 낮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3 보육정책 인지 여부와 만족도



- 보육정책에 대해 '모른다'고 응답한 정책은 정부지원 외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40.9%, 열린 어린이집 선정 32.6%, 3~5세 누리과정 개편 32.4%, 야간연장·24시간·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 32.3% 등 순임
- 보육정책에 대해 불만족이 높은 정책은 야간연장·24시간·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 29.4%,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9.2%,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25.4%, 정부지원 외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24.8% 등 순임

그림14 보육정책을 모르는 경우와 불만족 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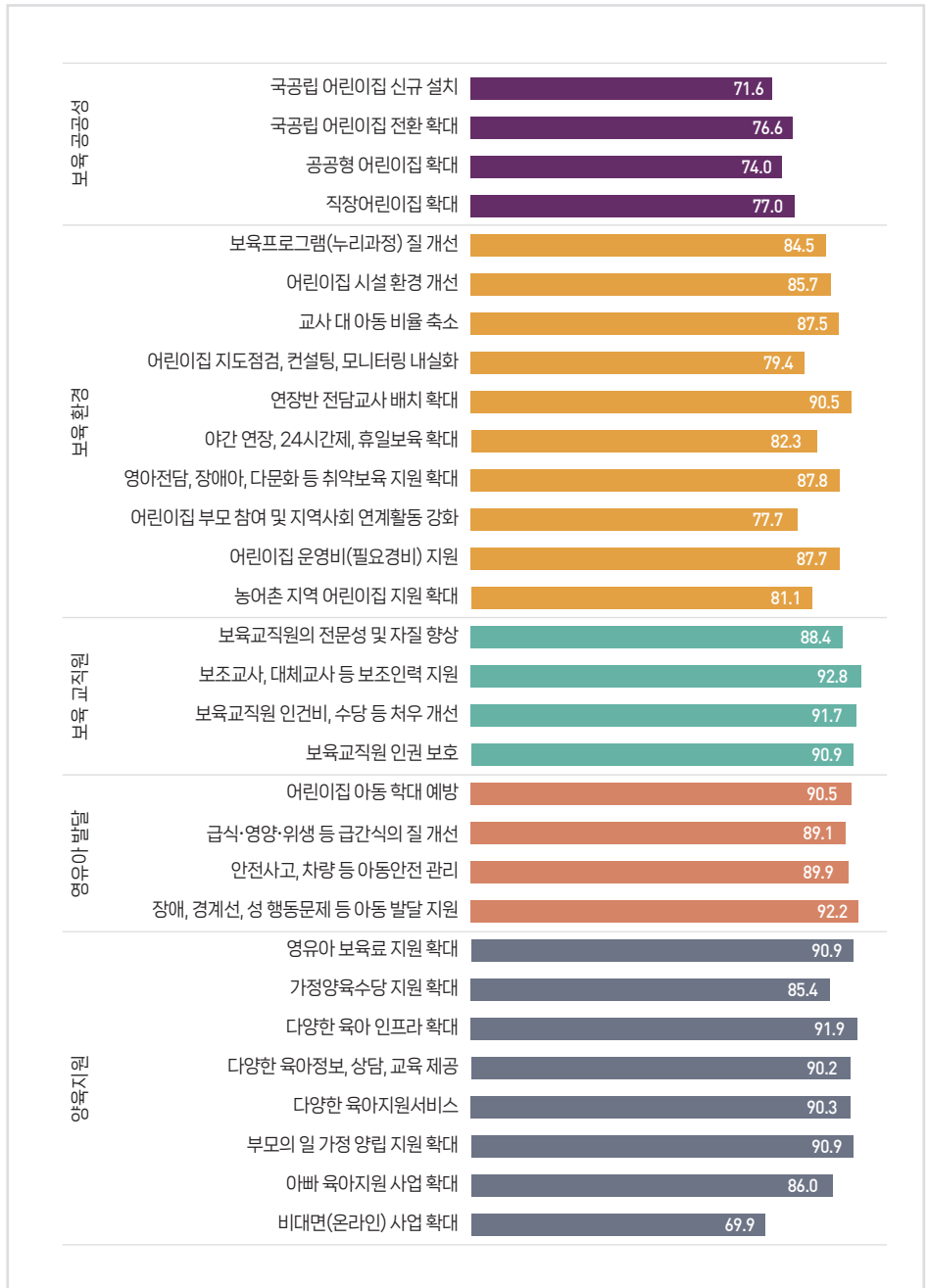
■보육정책 요구

•보육정책 강화 필요도

- 향후 경상남도의 보육정책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'보조교사, 대체교사 등 보조인력 지원' 92.8%, '다양한 육아인프라 확대' 91.9%, '보육교직원 인건비·수당 등 처우 개선'이 91.7% 순으로 높게 나타남. 비대면(온라인) 사업 확대는 69.9%로 가장 낮게 나타남

(단위: %)

그림15 보육정책 강화 필요도



04. 정책 제언

■ 보육지원

- 영유아 성장·발달 지원 및 권리 보호
 -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·발달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강화,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, 발달지연 조기 발견 및 적기 상담·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
-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
 - 영유아 중심의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, 영유아 발달 수준과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부합하는 공간구성 등 물리적 보육 환경 개선, 먹거리·안전·공기질 관리 등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
-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처우 개선
 -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,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. 보육 교직원 맞춤형 연수 지원, 노무·법률지원서비스 지원, 휴가·휴게시간 보장,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, 대체교사·보조교사 등 보조인력 확충 등 노력이 필요함
- 보육공공성 확대와 질 관리 강화
 - 장기임차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, 공동주택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, 국공립 어린이집 질 관리 강화,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노력이 필요함

■ 양육지원

- 긴급돌봄 등 대응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강화
 - 가정양육 중에도 긴급돌봄 필요 발생 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. 시간제보육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시 영유아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지원도 필요함
- 양육자 역량 강화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
 - MZ세대 부모 등 양육자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. 어린이집이 육아종합 지원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내용의 부모교육과 육아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함.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 추진도 필요함
- 즐거운 양육 환경 조성 위한 육아 인프라 확충
 -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. 시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확충, 다양한 실내외 놀이 공간 조성, 공동육아공간 마련 등 추진 필요함